“영세회원 차별”…장흥 정남진새마을금고 증좌 논란

출자금 기준 20좌 이상으로 늘려…자격 상실 회원 무더기 발생
공고 6개월 2800여명 증좌 안해…이사장 선거 앞두고 시끌

장흥 정남진새마을금고가 회원 출자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회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인 회원이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남진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인 회원당 출자금 하한선이 10만원(10좌)에서 20만원(20좌)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총회원 8600명 가운데 10좌 이하 회원은 절반에 가까운 4000여 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원공고를 통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2월20일까지 10좌인 4000여 명 회원들에게 20좌 이상 출자금을 내야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20좌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20좌 이상 증좌를 했고, 나머지 2800여 명은 아직 증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덕읍 A회원은 “금고의 자본금확충으로 재정지표를 늘린다는 명목이지만 한편 영세회원에 대한 차별대우로 마치 사금고와 같은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장흥읍 B회원은 “회원으로서 증좌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필 내년 전국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현 이사장과 입지자들간 유불리 역학관계가 엮이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용현 정남진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좌 미만 회원들은 대부분 그동안 회원만 가입해 놓고 무거래 부실회원들로 ‘새마을금고법 제10조 1항(2년 이상 무거래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중앙회의 지침과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출자금 증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남 일원 서남부 14개 시·군 마을금고협의회 가운데 현재 목포와 해남, 무안 등 7개 시·군 금고가 1인 회원당 많게는 30좌 이상 증좌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개별금고마다 자체 선거관리체제로 치러져 왔으나 내년 3월5일 전국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관하에 실시하게 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램프공원에 만발한 버들마편초(버베나) 밭에서 방문객들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 동화나라서 즐기는 버베나 향연

29일 동화면 램프공원서 축제
라인댄스·국악·마술 풍선 공연

장성군 동화면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1회 동화나라 버베나 축제’가 오는 29일 막을 연다.

버들마편초(버베나)는 6월부터 9월까지 피는 다년초 식물이다. 꽃말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세요’, ‘가족의 화합’, ‘단합’이다.

동화면 남평리 램프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공원 곳곳에 만발한 버베나와 코스모스, 부용, 수국 등이 손님을 맞는다.

동화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연합회 등 주민과 공직자는 지난 4월부터 각종 꽃을 공원에 심으며 축제를 준비해왔다.

축제장에서는 동화초등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난타, 라인댄스, 국악, 마술 풍선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촬영 공간에서 사진을 찍고 ‘버베나 페이스 페인팅’ 등을 즐긴다.

축제장 주요 동선을 따라 마련된 ‘피크닉존’에서는 우산과 돗자리를 빌릴 수 있다.

장성 여성단체연합회는 열무 비빔밥과 냉국수를 마련해 축제장 방문객들의 허기를 달래줄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동화’를 주제로 한 장성 아이들의 미술 작품이 전시된다.

조성구·이윤복 동화면 버베나 축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관 협력으로 열리는 ‘1회 동화나라 버베나 축제’가 동화면을 대표하는 명품 지역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소셜미디어(SNS) 행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보은산 V랜드공원서 28일부터 사흘간 강진 수국길축제

수상 레저 코너·힐링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

강진군 강진읍 보은산 고성제에 마련된 ‘물 위의 피아노’. 이번 강진수국길축제의 핵심 콘텐츠다.

28일부터 30일까지 강진읍 보은산 V랜드 공원에서 ‘제2회 강진 수국길 축제’가 개최된다.

축제장에서는 ‘전국 화훼1번지 강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형형색색의 수국이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번 축제는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특별 개장과 함께 수상자전거 등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수상 레저 체험 코너가 준비되며, 물 위의 피아노, 그린터널, 웨딩 인생샷 등 색다른 포토존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여기에 마술쇼, 솜사탕쇼, 블록 놀이, 목공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는 짱뚱어탕, 콩국수, 비빔국수, 오징어 파전과 정겨운 여름 제철 음식과 함께 닭꼬치, 핫도그, 닭강정, 츄러스, 카페 음료 등 길거리의 별미, 푸드트럭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28일 오후 7시에는 축제장 주무대에서 숲속 힐링 음악회 ‘6월의 피크닉‘이 개최된다.

29일 오후 5시부터는 ‘제22회 고성사 산사음악회’가 고성사에서 막을 올린다. 식이 끝나면 돌아가는 방문객들에게 사찰의 풍미가 담긴 비빔밥 무료 공양도 예정돼 있다. 고성사는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 군에서는 축제 행사장부터 고성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축제장 주무대에서 수준 높은 재즈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축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6시 축제장 주무대에서 수국길 콘서트가 폐막을 준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화훼 1번지이자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국을 재배하고 있는 강진의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수국길 축제를 준비했다”며 “강진 수국길 축제장에 오셔서 아름다운 수국을 배경으로 특별한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사적지정 학술대회

사적 당위성 확보 역사적 가치 조명

함평군은 27일 오전 10시 함평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사적지정 국제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의 사적 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와 역사적 성격을 논의한다.

전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연다.

전남도 기념물 151호인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은 마한 문화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꼽힌다. 봉분 전체를 돌로 채운 독특한 묘제 방식이 주목받았다.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벌인 학술조사에서 청자연판문완, 형상하니와 등 외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학술대회는 6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의견수렴 시간으로 구성됐다.

주제 발표에는 임지나 대한문화재연구원 부원장(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이 갖는 지역사회 속의 위상), 박천수 경북대학교 교수(함평 금산리방분의 성격과 출현의 역사적 배경),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성격)이 나선다.

또 히로세 사토루 일본 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주임연구원의 ‘왜에서 본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의 원통·형상하니와’, 서현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출토 유물의 계통과 의미’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자들은 서남해안 해양교류 중요 거점이었던 함평의 독자성을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장충희 전북연구원 연구원이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활용 방안’ 발표를 통해 유적 활용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향후 과제 등을 이야기한다.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전경. 〈함평군 제공〉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에서는 홍보식 공주대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유은식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소장, 전용호 국가유산청 학예연구관, 곽명숙 전남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소장, 다카타 칸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의 학술 가치가 탁월한 만큼 조속히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계적인 보존·정비계획과 함께 다양한 활용 연계방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공존하는 문화유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바이오식품산단 10개사 543억원 유치

장흥군은 최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투자협약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투자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투자를 실현하면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분양률은 현재 68.3%에서 75.8%로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10개 기업은 바다마마, 제이엠바이오, 더K, 황금빛, 건강해, 지에프팜호남, 오니커스, 인트리아스마트팜, 야긴건설, 젓가락스테이크굽다이다.

투자협약 규모는 총 9만535㎡, 543억원으로 알려졌다. 시설이 완공되면 398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감사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어린이 건강 간식 만들기
나주시 교육생 25명 모집

지난해 나주시가 진행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교육에서 시민들이 조리법을 배우고 있다.

나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건강한 어린이 영양간식’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어린이 영양간식’ 교육은 우리 쌀과 밀을 활용해 집에서 손쉽게 간식을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은 우리 쌀에 대한 이해, 쌀·밀가루 활용방법 등 이론 교육과 ‘영양 만점 크랜베리 스콘’, ‘촉촉한 수제 우리 밀 초콜릿 쿠키’, ‘풍미 가득 갈레트브루통’, ‘노(NO)버터 견과류 비스코티’ 요리 실습으로 구성됐다.

오는 7월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네 차례에 걸쳐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나주에 살면서 2012년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농업인, 소비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나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전자우편 dhr9577@korea.kr)로 내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고3 모두에 1인당 20만원 특별장학금

올해 화순지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모두 특별장학금(1인당 20만원)을 받는다.

화순장학회는 지난 24일 2회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지난 5월 귀뚜라미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확보한 장학금 3000만원 등 6400만원 규모로 마련됐다.

올해 화순지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다니는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각종 입시 경쟁과 취업난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원서 접수비와 면접 경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